

이건희

컬렉션

이중섭 '은지화' 광주로... 천경자 '꽃과 나비' 전남으로

광주시립미술관

5명 작가 30점...내년 전시

이중섭 '엽서화' 등 8점...김환기·오지호 5점

이응노 '군상' 등 11점...임직순 '포즈'도

전남도립미술관

9명 작가 21점...9월 공개

천경자 '만선' 등 2점...김환기 '무제'

오지호 '항구풍경' 등 5점

허백련 '산수화첩'...김은호·유영국도

이중섭·김환기·천경자·오지호... 한국 근현대미술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광주·전남에 온다.

고(故) 이건희 회장 유족들은 28일 '이건희 컬렉션' 중 광주시립미술관에 5명 작가 30점, 전남도립미술관에 9명 작가 21점을 기증했다. 유족들은 광주·전남 지역에 연고를 둔 작가들의 근현대기 작품을 중심으로 기증했다. 이번 기증으로 미술관의 소장품 컬렉션이 풍부해져 시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 중에는 미술관측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된 '국민화가' 이중섭(1916-1956)의 작품이 눈에 띈다. 기증작은 은색 담배 종이에 그린 '은지화(銀紙畵)' 4점과 연인 야마모토 마사코에게 보낸 '엽서화' 4점이다. 궁핍한 생활 속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그린 은지화는 1950년대 초반의 작품으로 알려져 왔는데 이번 기증된 4점의 작품 중 3점이 1940년대 작품으로 은지화의 시작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작품 '우주'로 국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130억원) 기록을 세운 신안 출신 김환기(1913-1974) 작가의 작품은 모두 5점이 기증됐다. 1968년에 제작된 대작 '30-III-68#6'(121.3cm×85.6cm)을 비롯해 '무제' 등 유화 4점과 드로잉 작품 1점이다. 미술관은 현재 유화 1점과 드로잉 2점을 소장하고 있어 김환기 작품은 모두 8점을 보유하게 됐다.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을 남도화단에 정착시킨 오지호(1905-1982) 화백의 작품으로는 '추경', '정물', '설경', '계곡 추경' 등 1960-70년대 제작한 풍경 4점과 정물 1점의 유화를 포함, 모두 5점이 기증됐다. 기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7점의 유화 작품과 함께 오지호 컬렉션이 풍성해졌다.

지역 출신 작가는 아니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직후 시위 군중을 표현한 '군상(群像)' 시리즈로 잘 알려진 고암 이응노(1904-1989)의 작품은 모두 11점이 기증돼 기증 작품 수가 가장 많다. '문자추상' 경향의 대작 2점과 '군상' 연작 3점, 염소, 닭을 소재로 한 수묵화 5점 등이다. 그밖에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수로 재직하며 남도 서양화단에 영향을 끼친 임직순(1921-

1996)의 작품으로는 '포즈'가 기증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 개관 30주년을 맞는 2022년 이번 기증 작품들을 시민들에게 전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도립미술관 기증작 중에는 고흥 출신 작가 천경자(1924-2015)의 작품이 눈에 띈다. 1970년대 실험을 통해 동양화라는 매체를 넘어서는 다채로운 시도를 한 '꽃과 나비'와 '만선' 등 작품이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다.

김환기 작품 '무제'는 그의 대표 화풍인 전면점화(全面點畵)가 시작되기 전 작품으로 화면을 가로지른 십자구도가 인상적이며 '풍경'과 '복사꽃이 있는 풍경', '잔상', '항구풍경' 등 5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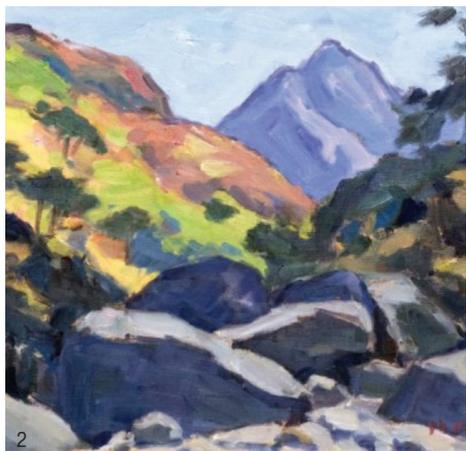
기증된 오지호 화백의 작품은 특유의 필치가 살아있는 중요작이다.

그밖에 '색채의 미술사'로 꼽히는 임직순의 '여인 좌상'과 함께 의재 허백련의 작품으로는 '산수화첩', '산수' 등이 기증됐다.

지역 외의 작가로는 한국화 분야에 큰 획을 그은 이당 김은호 화백의 '광-쌍지도' 등 4점이 기증됐으며 화려한 색감이 돋보이는 유영국과 박대성의 작품도 도립미술관 품에 안겼다.

지난 3월 광양에 문을 연 전남도립미술관은 오는 9월1일 기증작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후 상설관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1 이중섭 작 '은지화'
2 오지호 작 '계곡추경'
3 김환기 작 '무제'
4 천경자 작 '꽃과 나비'



국립중앙박물관에 '인왕제색도' 등 2만1600여점 기증

6월부터 대표작 전시...국립현대미술관, 8~9월 서울·과천 등서 특별전



겸재 정선 작 '인왕제색도'(국보 2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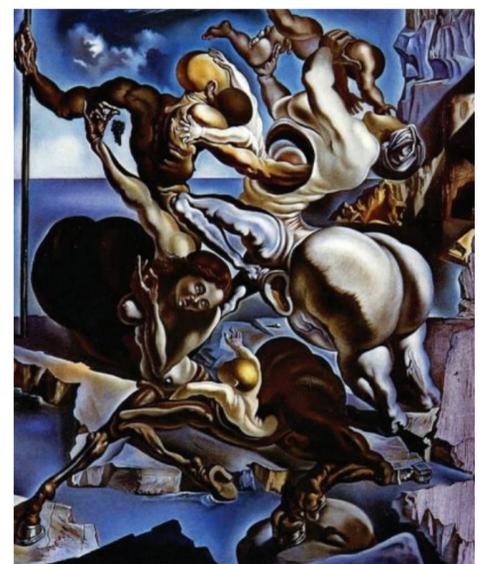
'이건희 컬렉션' 2만 3000여점은 대부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안겼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국보 14건, 보물 46건 등 모두 2만 1600여점의 고미술품이 기증됐다. 이 중에는 겸재 정선이 비 온 뒤 인왕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인왕제색도'(138.2cm×79.2cm·국보 216호)와 단원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추성부도'(보물 1393호), 고려 불화 '전수관음보살도'(53cm×86cm 보물 2015호) 등이 포함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6월부터 대표 작품을 선별해 '고 이진희 회장 소장 문화재 특별공개전(가제)'을 시작으로 유물을 공개한다. 이후 13개 지방소속박물관 전시와 국외 주요 박물관 한국실 전시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김환기·박수근·이중섭, 클로드 모네, 파블로 피카소, 마르크 샤갈을 비롯한 국내외 거장들의 근대미술 작품 1600여 점을 기증받았다.

기증 목록에는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이중섭의 '황소' 등 한국 대표작가들의 작품이 포함됐으며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호안 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을 비롯해 샤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피사로 등의 서양미술 걸작들도 기증된다. 모네와 피카소 작



살바도르 달리 작 '켄타우로스 가족'

품은 국립현대미술관의 첫 소장품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오는 8월 서울관에서 '고 이진희 회장 소장 명품전(가제)' 개최를 시작으로, 9월에 과천 등에서 특별 전시와 상설 전시를 통해 작품을 공개한다.

그밖에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마크 로스코, 알베르토 자코메티, 프랜시스 베이컨 등 기증 목록에서 제외된 주요 서양 현대미술 작품들은 삼성가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관리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